

Jaya Masiha! ◯ 스님 찬양!

May. 29, 2022

Vol. 34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께

벌써 여름이 왔습니다. 이곳은 벌써 35도를 훌쩍 넘는 한 여름으로 들어왔습니다.

더운 날씨가 몸을 지치게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세요?

N팔은 3주전에 전국 7개주의 시장 선거와 구청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전국이 각 정당을 중심으로 선거유세를 하여 가뜩이나 더운 나라가 온통 열병에 걸린듯 하였는데 끝나고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왔네요. N팔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온듯 합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정부 역시 관광 수입을 위해서 모든 제한 조치를 풀었고요. 그러나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처럼 되지 않으려고 최근 고가 수입품은 물론 인도에서 들여오던 채소, 과일까지 수입을 규제하고, 인도는 밀 수출을 금지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류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주 6일 근무제를 5일 근무제로 하여 기름 소비를 줄인다는 방침을 내놓아서 코로나 이후 얼마나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M University_Cosmopolitan Languages Center & PSD 개원식

오랜 기다림 끝에 지난 3월 9일에 대학 총장과 모든 보직교수들이 참석하여 센터의 개원을 축하했습니다. 특히 N팔 서쪽 지역에 최초로 개원하는 언어 센터라 의미가 더욱 큼니다. 한국어를 비롯하여 UN 6개 주요 언어들과 산스크리트어, N팔어 등을 배울 수 있는 언어 센터는 카xx두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앞으로 센터를 통해 외국어를 배워 외국 유학을 떠나는 학생

들을 상상해 봅니다. 꿈조차 꿀 수 없는 환경에서 자포자기했던 학생들에게



이젠 꿈을 꿀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게 되었습니다. 속히 다른 언어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대학생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 한국어 강의 시작

개원식을 마친후 학생 모집을 했습니다. 총 17 명이 지원을했는데 13 명만이 등록을 했습니다. 대학교측에서 센터의 재정자립을 강조하여 수업료를 높게 책정했기때문에 적은 인원이 지원한것 같습니다. 3월 30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한국어를 주 5일 하루에 2 시간씩 가르칩니다. 2년 넘게 기도하며 만난 학생들이라 너무 반갑고 너무 귀히 보이고, 이들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워낙 공부에 대한 습관이 잘 만들어지지 않은 학생들이라 잘못 따라오는 학생들을 위해 방과후 수업도 하고 한 명씩 상담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록 강의중에는 일절 ㅇㅈ님을 언급할 수 없지만 저희가 ㅇㅈ님만해서 저희의 얼굴 표정, 말, 성품과 행동으로 ㅇㅈ님의 빛과 향기를 뽐내며 ㅇㅈ님께서 학생들 한명 한명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ㄱㄷ 하고 있습니다. 언더 버하들 씽 대학교 총장을 비롯 관계자들,직원들까지 저희를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13 명의 학생들과 가을학기에 수강할 새로운 학생들이 ㅇㅈ님을 만나게되기를...



❖ 수 년전에 뿌려진 사랑

9 년전 처음 교육대학교에서 저희에게서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을 카xx두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만났습니다. 마스크를 쓴 상태라 저희는 못 알아 봤는데 한국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청년과 일본에서 N팔청년을 만나 막 결혼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여자청년을 만나 어찌나 반갑던지. 그 동생은 그 때 누나랑 함께 공부 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대학교를 마치고 한국에서 직장을 준비하고 있다합니다.

9 년전 한국어를 정말 못해서 시험에 통과할 수 있겠나 걱정했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다들 자기의 꿈을 이뤄가고 있는 모습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보여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이전에 했던 사역의 결과가 궁금했는데 그때 뿌려졌던 사랑이 자라고 있으며 주님의 때에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들이 보람을 듣고 보람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 교수 비자 취득

센터의 개원식 후에 대학교에서 교수 임명장과 사무실을 받았습니다. 총장이 사무실을 제 2 의 집으로 만들어 주라고 관계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Director 의 사무실보다 훨씬 좋은 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가진 3 개의 교수 비자중 2 개를 저희 각자에게 할당해 주어서 얼마전에 이민국에서 교수 비자도 받았습니다.(다음에 올 수도 있을 교수 요원을 위해 2 개를 받아놨습니다.) 매년 비자를 갱신할 때마다 이민국 직원이 색안경을 끼고 보아서 늘 긴장되고 조마조마했었는데 이번엔 대학교 교수라는 확실한 정체성으로 편하게 비자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왜 인연인지 ... 2019 년 비자를 갱신할 때, 이민국의 강경한 태도와 조사로 2020 년 이후에는 비자 를 갱신할 수 없겠단 생각과 그래서 더 이상 N팔에 머물 수 없고 사역을 할 수 없겠단 생각에 낙심이 가득했었는데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으로 그 시간이 넘어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왓지 청년들을 보면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고 소망이 싹틈니다. 저희 아들, 딸을 만나는 것처럼 매일 아침 그 얼굴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날을 눈이 짓무르도록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같이 상처를 갖고있는 이들의 삶에, 영혼에 주님의 평강이 깃들기를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전 3:6-8)

N팔 스크릿에서
최 동욱, 최 향숙 드림